

탑골 무료급식 원력 이어간다

원경 스님 원각사 인수... 4월 1일 급식 제개

22년째 이어온 원력은 쉽사리 끊어지지 않았다. 중단 위기에 처했던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은 이제 새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전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심곡암 주지)이 기거이 일을 맡았다. 심곡암 신도 강위동(72) 거사가 후원회장을 맡고 스님을 도와 재원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3월 3일부터 중단되었던 급식은 4월 1일 재개된다. **〈본지 1035호 5·31면 보도〉**

이 소식을 가장 반기는 이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그동안 무료급식을 담당해왔던 보리 스님(원각사 주지)이 건강악화로 더 이상 급식소를 운영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스님의 쾌차를 빌면서도 한 끼를 어디서 때워야하나 걱정하던 이들이었다. 황우식(76) 씨는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한가득이었는데 다시 문을 열게 돼 다행 또 다행"이라며 "힘없고 배고픈 이들을 저버리지 않아줘서 스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했다.

보리 스님 역시 "급식소를 찾는 이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돼 정말 다행"

이라며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원경 스님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경 스님에게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을 제의했던 이는 다른 아닌 심곡사 신도 강위동 거사. 5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이곳에서 배식 봉사를 해왔던 그는 지난 1월 급식폐쇄 소식을 접하고 고민을 거듭하다 평소 적을 두고 다니던 심곡사 주지 원경 스님에게 이를 논의했다.

하지만 원경 스님이 선불리 강 씨 의견에 힘을 보태줄 수 없었던 것은 월 1천5백만원 가량의 운영비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대로 22년 자비원력을 저버릴 수 없었다. 원경 스님은 탑골공원에 직접 '현장 답사'를 나갔고 어떻게 해서든 원력을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 어디 하나 의지할 데 없는 어르신들을 사회가 보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원경 스님은 "생로병사의 고통은 사회가 복지의 덕성(德性)을 기움으로써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가 생로병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를 운영할 심곡사 신도 강위동 거사(오른쪽)와 신도 강위동 거사(왼쪽).

**심곡암 신도 강위동 거사
추적으로 후원회 결성
"한끼 기다리는 어르신
외면할 수 없어 결심"**

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 이같은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곳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3월 2일 마지막 급식을 진행했던 원각사 무료 급식소는 이미 다른 세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원경 스님과 강 거사는 3월 3일 위약금까지 지불하면서 건물에 대한 계약을 새로 맺었다.

그동안 원각사 탑골 무료급식소에

서 공약을 대접했던 어르신은 하루 2백명 가량. 앞으로도 이 인원을 줄일 생각은 없지만 스님과 신도 두 명으로 운영하는 버거운 현실이다.

후원조직은 전혀 없는 상태지만 향후 봉사자들 중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이사회를 꾸리고 후원처 등을 계속 발굴해갈 생각이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강 거사는 "어떻게든 꾸려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다시 열린다는 소식이 들리자 기존 봉사자들도 계속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연락을 주고 있다. 불자 범종인 모인 서초반 야외 역시 앞으로도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원각사를 찾을 예정이다.

무료급식소는 내부 정리와 인수인계가 마무리되는 4월 1일 다시 문을 연다. 법당과 식당이 있던 2층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식당을 넓히고 조그만 불단을 놓는다. 또 급식이 없는 시간에는 문화·시민단체에 건물을 무료로 개방해 문화나눔공간으로 운영해갈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iinus@hyunbul.com

후원계좌 : 국민은행, 사회복지원각
006001-04-282872
문 의 : 010-3737-2658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서울국제불교박람회 개막
'2015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3월 12일 서울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명선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회의원 20여 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 스님, 조계사 주지 원경 스님,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김익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은 테이프 커팅식 장면
글=정혜숙 기자 · 사진=박익아 수습기자

해인총림 방장 선출 '산 넘어 산' 우려 총림

산중총회서 원각 스님 추대... 구성원 자격 문제 제기 이어져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후보에 원각 스님이 3월 7일 산중총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하지만 최종 인준까지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해인사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방장 인준을 보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해인총림 12교구 선거관리위원회 장 선해 스님은 3월 11일 원각 스님에 대한 방장 인준을 보류해 달라는 요청서를 중앙종회에 제출했다. 해인사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종헌 9조 3항과 법인관리법 17조에 따라 미등록법인의 임원과 그 도제의 권리가 제한되어 하지만 투표표 했으므로 7일 시행된 산중총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 스님과 향록 스님 등은 "해인총림 산중총회는 40여 명이 넘는 무자격자들이 참석해 투표한 만큼 원천 무효"라며 12일 중앙종회 등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성공 스님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미등록법인 임직원과 도제 40여 명이 선거(산중총회)에 참여했다"고 선언하고 법인관리법에 의거해 빠졌다는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원각스님해인총림방장추천위원회는 "산중총회의 만장일치

무효"라고 주장했다.

원각 스님의 피선거권에서도 문제를 삼았다. 성공 스님은 "원각 스님이 이사로 있는 선원수좌복지회가" 제기했다.

성공스님은 "재단법인 해인동문 장학회 뿐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금강 등 해인사 스님들이 임원으로 참

**해인사 선관위
"미등록 법인 이사로
총회 참여, 원천 무효"**

**원각 스님 추천위
방장은 선거 아닌 추대
"소청 대상되지 않아"**

여하는 법인 여러 곳이 2월 28일 전에 종단 등록을 마치지 않았음에도 당사자와 도제가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나 역시 윤영하는 법인의 종단등록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투표에 참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지만 원각스님추천위원회는 "산중총회의 만장일치

로 방장후보를 선출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원각스님추천위 공동대표 원학 스님은 중앙종회에 접수한 '반박 의견서'를 통해 "해인사 방장후보를 선출하는 종단절차는 '선거법'에 의한 투표로서 뽑는 것이 아니라 '산중총회법' 제8조 '방장후보자의 선출은 산중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산중고유의 방식으로 한다'는 회의절차를 통해 선출하므로 선거 소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성원명부는 중앙선관위가 3월 4일 확정했다"면서 "사전열람 기간에도 아무런 이의신청이 없었다. 총무원에서 사전열람을 명부를 내려보내며 '법인법'에 의한 권리제한을 선관위에 국한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양측의 이의 신청 및 반박 의견을 보고 받고 15일 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17일 열리는 중앙종회 제201차 임시회에서 해인총림 방장 인준의 건이 다루어질지 여부는 16일 의정단 연석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차주 상보)

사 고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창'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i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회·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회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2015년 연등회, 광화문서 만나요

봉축위 일정 공개... 5월 15~18일 세계평화기원대회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은 광복 70년을 맞아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다양한 행사로 진행된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봉축위)는 3월 11일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일정과 봉축표어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발표했다.

본격적인 봉축행사에 앞서 4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는 봉축점등식을 시작으로 5월 15일부터 봉은사와 우정공원, 청계천 일대에서 전통등전시회 마련돼 봉축 분위기를 한껏 달군다.

이번 봉축에는 세계평화 기원을 위해 세계 각국 고승 300여 명이 초청될 예정이다. 이들은 연등회 전날인 15일 입국해 현충원 참배

등을 하며 16일 오후 2시에는 세계평화를 위한 세계종교인 회의를 열 예정이다.

본격적인 봉축행사는 1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어울림마당을 시작으로 흥인지문과 광화문까지의 제등행렬로 이어진다. 제등행렬에는 초청된 세계고승들이 함께 평화를 기원하며 대중들과 함께 행진한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회향식을 겸해 열린다.

오후 7시부터 광화문 광장은 간화선 무차대회로 전환된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평화메시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17일 조계사에서는 수륙재도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출가·열반절 기획 - '수능엄경'에서 만난 25성자(1) 14

보련 기획 ✓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초파일 용품 |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만 월 등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생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8번길 27